



사라져 가는 전통 문양

현대 디자인 감각으로 되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양집 3집 -기와·전돌' 발간

◀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탑상문 전돌(25.6×28.4×6.3c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이 소장 유물 가운데 예술적 표현이 뛰어난 기와와 전돌 문양 3집을 담은 <한국전통문양집 3집-기와·전돌> 5만 원, CD 포함을 최근 발간했다.

고유문화를 바탕을 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 DB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 문양을 오늘날의 디자인 감각으로 되살리자는 취지다. 눈으로 보고서도 의지를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일 칸인들에게 전통 문양이 지닌 아름다움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겠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서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기와 문화를 꽃 피운 것은 통일신라시대다.

기와는 지붕을 덮는 병기와와 처마 끝을 마무리하는 막새기와, 장식기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존하는 기와나 전돌이 대부분 경주 일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사찰 관련 유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양집에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식물 문양, 동물 문양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연꽃무늬와 불경 속에 나오는 상상상의 새 기러기, 천계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의 선인 비현(飛天) 등 불교 관련 문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교적 이상과 미적 감수성이 만나기에 가장 적당한 조형물이 사찰 건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택택 디자인실장은 "학술적 자료로서는 물론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라인의 미소' 등 200점 단순·체계화 "자료·문화 콘텐츠로 활용 됐으면..."

문양을 새겨 넣는 기와는 바로 이 막새기와다. 막새기와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고 궁궐이나 사찰 등에서만 사용됐다.

문양은 종류에 따라 문자 문양(명문기와), 사람얼굴 문양(인면와), 귀신얼굴 문양(귀면와),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enny@buddhista.com

"도신禪 천태사상 영향 받아"

최동순 씨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서 주장



20일 열린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도신禪(道信禪)에 미친 천태 사상'을 발표한 최동순(동국대)

관련 문헌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론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 씨는 도신의 저술인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의 입도안심요법편(入道安心方便法門)과 천태지의가 강설한 <천태소지관(天台小止觀)> 등과 그의 제자의 저술을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하는 문구가 10구절임을 밝혔다. 비슷한 구절은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좌선작법(坐禪作法)의 형태는 천태지관(天台止觀)의 형태를 그대로 따온 것이고 선종의 밑바탕이 된 '일심삼매(一心三昧)'도 지의가 설한 <마하지관(摩訶止觀)>을 따르고 있다.

저술중 서로 일치·비슷한 구절 많아 좌선작법 천태지관 행법서 따와

선학과 강사·사진) 최동순 씨의 "선종의 제4조인 도신의 선사상이 천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도신의 선사상이 천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도신이 천태종을 개창한 지(智顓)의 제자 지개(智鑑)로부터 직접 천태교학을 배웠는지 여부가 기존의 논의 대상이었다면, 최 씨는 문헌에서 발견된 도신의 저서와 천태종

문헌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선종의 밑바탕이 된 '일심삼매(一心三昧)'도 지의가 설한 <마하지관(摩訶止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천태지의가 방대한 분류작업과 세밀한 조직,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면 도신은 일행삼매, 안심, 방편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광범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호 연구원 주장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터넷을 새로운 도구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일고 있지만 막상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불교계의 정보화 실태 및 인식'을 발표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은 컴퓨터 이용이나 정보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연구원이 전국의 승가대학 혹은 강원대 소속된 승려 469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스님의 조사결과(2001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38.7% 컴퓨터 이용자의 68.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9%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를 들었다. 다음으로 19.9%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 불교계 최초의 일간 인터넷 신문인 불뉴스 초기 화면.

"불교계 정보화 인식 낮다"

"시대 흐름 따라 피동·소극적 자세 마인드 확산위해 발상전환 등 시급"

9.4%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2000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28.1%),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24.8%),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20.2%) 순으로 나온 것과 비교된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만이 대

정보사회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불교계 정보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단 내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불교 교리의 정보화' (43.5%)를 가장 시급한 정보화 사업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종무행정체계(21.2%) 실행관련 정보(18.5%), 불교문화재(11.4%)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어서' (48%), '방법을 몰라서' (30.7%), '시간이 없어서' (13.4%)를 들었다. 박 연구원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 없이

초기불교는 불교 수행의 근본 체계를 제(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가운데서 지혜(慧)에 비중을 둔다. 그러면서도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선정과 수계를 함께 중시했다. 반면 조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선종은 초기불교와는 달리 선정(定, 정)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선종의 초초(初祖)인 달마는 삼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을까?

동국대 불교대학원 권탄준 겸임교수는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반년간) 31집에 발표한 논문 '보리달마의 삼학관(三學觀) 고찰'에서 '달마의 삼학관에는 대승 불교의 입장과 초기불교의 시각이 융합해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

대승·초기불교 융합 달마 삼학관 수립

권탄준 동국대 교수 발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달마론> 등 달마의 것으로 인정받는 저술의 분석을 통해 '달마는 번뇌를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구축되어 있으므로 뒤를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는 대승반야사상의 삼학관을 철폐하지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 '동시에 초기불교의 삼학관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달마의 삼학관은 정(定)과 혜(慧)의 가치뿐만 아니라 제(戒)의 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초기불교의 삼학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초월하여 어디에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나 집착함이 없이 살아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삼학관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현학(玄學)의 영향까지 엿볼 수 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융합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불교 전통의 삼학관에 따르면서도 대중의 근기에 맞추기 위한 방편 내지는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문화적 융합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 해인사 고려각판(국보 206호).

"고려대장경 남해서 판각"

경관 종착지 등 문헌적 자료 제시 "부식막게 해조사용 가능성 연구"

향토사학자 정은 씨 주장

경남 남해군이 고려대장경 판각의 성취임을 문헌적인 요소와 유물적 요소를 제시하며 밝혀낸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지명 연구가인 정은 씨는 <지명 연구로 찾아낸 고려대장경 판각 흔적>이라는 책을 통해 "대장경 판각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나 판각 공사 중 업무의 성과를 보고하

고 지서를 받는 등의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 남해 전 지역에 걸쳐 방대하게 분산,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명은 그곳에 위치해야 할 이유와 의미를 지닌다"며 기록된 지명의 변화과정과 부여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명과 고려대장경 판각의 관계를 밝혀 나가고 있다.

이 책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단계별 흔적을 살피고 있는

제3장, 정 씨는 대장경 판각 목재의 운송 과정에서 생겨난 지명, 경관 목재의 종착지 등 10단계로 나눠 지명과 자연환경, 문헌적인 자료 등을 통해 남해가 고려대장경 판각장소일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정 씨는 "앞으로 경관이 찍지 않고 보존되는 데 해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국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은 KT(한국통신)의 협찬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모든 사찰 포교당 및 관련 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불교계의 정보화 촉진 대책을 공동의 불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의 주지스님들과 단체장님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조사요원의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설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조사대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록 중단의 모든 단위사찰·포교당
- 현재 활동중인 불교관련 단체

조사기간

- 2002년 4월 1일 ~ 30일

조사결과 발표

- 2002년 5월 중 (지상 공개 및 책자 발간)

당부 사항

- 전의 설문 조사에 응대에 주십시오.
- 우편 조사시 설문지 귀찮을 심심할 때 주시고,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조사시 조사 요원의 활동에 협조에 주십시오.

실태 조사의 의의

- 불교계 최대규모로 실시(전수 조사)
-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 파악
- 불교계의 정보화 비전 제시할 수치적 근거 마련
- 불교계의 정보 인프라 구축의 장점과 사각지대 탐구
- 불교 관련 IT 산업의 활성화와 부추길 촉매 역할 기대

설문 주요 내용

- 전산 장비 관련 : PC/모니터 보유 여부, PC/모니터 보유 수량, PC/모니터 사양, 주 사용목적 및 만족도, 전담 전산 시무원유무 등
- 인터넷 관련 : 인터넷 사용 여부, 주 이용 목적 및 만족도, 주 접속 목적 및 사이트 등
- 초고속 인터넷 관련 : 초고속 인터넷 설치 여부, 설치 계획 여부, 미 도입 이유 등
- 무선 기기(모바일) 관련 : 핸드폰 보유 및 사용 여부, PDA 사용 여부, 워킹 방식 설치, 의망 여부
- 정보화 의식 관련 : 정보화 필요성의 인식 정도, 불교계 정보화 수준 평가, 전산 관련 지식 정도,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